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4호 【루게 제24537호】주제 103(2014)년 5월 4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감사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공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장병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공사를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당중앙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고 후대들을 위한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열렬한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당과 국가의 최대중대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파사로운 손길이 어려웠고 혁명의 계승자들인 새 세대들을 위하여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세상에 들도 없는 아동궁전이다.

당중앙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빠른 시일내에 세계에서 으뜸가는 야영소로 개건할것을 직접 맡기하고 이 중대하고 긴급한 전투적과업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군위부대, 영웅부대인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에 맡겨주었다.

우리 당은 정세가 준엄하고 나라의 형편이 아직 어려운 속에서도 야영소의 개건설계로부터 자체보장에 이르기까지 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를 위해 태양철까지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정중히 모시고 세상에 자랑할만한 아이들의 호텔, 멋쟁이궁전으로 훌륭히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진막강한 전투력이 낳은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지난해 11월 마시평스키장건설을 끝낸 즉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공사에 진입한 군인 건설자들은 엄동설한의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혁명적근인정신으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줄을 세차게 지켜올려 반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당의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의 명령지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영웅적인 군위부대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순간부터 준공의 날까지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하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여 불가늠하는 것은 혁명군대의 본래, 군위부대의 영예를 힘있게 떨치었다.

군인건설자들은 야영소의 모든 건설대상물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제에 맞으며 주제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보장된 창조물로, 당의 후대만이 비긴 몇몇이건축물로 일떠세웠다.

동해명승 송도원의 주변풍치에 어울리게 훌륭히 개건된 국제친선소년회관과 야영각들, 새로 건설된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야외운동장과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장을 비롯하여 한쪽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은 당중앙의 리상에 창조된 목표를 따라세우며 중정의 뜻을 아낌없이 바친 군인건설자들의 고귀한 노력과 지극한 정성이 승배되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건설에서 일어난 기적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날에 대한 당의 의도를 훌륭히 구현한 인민군대장정치사업의 위력이 안아온 자랑한 결실이다.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지휘관들과 정치일꾼들은 나라의 만이들부터, 영웅부대로 내세워 주고 군인건설자들을 위하여 현지에서 모란봉악단공연까지 진행하도록 은정을 베풀어준 당중앙의 하늘같은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한 현장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전투

조직과 지휘를 체계적으로 짜고들어 온 건설장이 정경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으며 군인대중을 위훈창조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하늘가에 높이 터져오른 축포의 불보라는 강대하고 문명한 앞날의 우리 조국의 모습을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새겨 줄 때, 당의 명령을 받들어 불가늠하는 것은 혁명군대의 본래, 군위부대의 영예를 힘있게 떨치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되어 우리 학생소년들이 사계절 마음껏 야영을 즐기게 됨으로써 《세상에 부럽없으라》의 노래소리가 동해명승지의 창공높이 울려 퍼지게 되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게 되었으며 원산지구 세계적인 향구문화도시로 전변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되었다.

당의 사상과 명도를 앞장에서 받들고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위하여 충정의 맘을 아낌없이 바치는 군위부대, 전투력과 일본세력으로부터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련이어 훌륭히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은 시대의 영웅들이고 애국자들이며 우리 조국과 새 세대들은 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공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장병들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과외교양지지를 받던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의 령도를 깊이 빛내이고

새 세대들에게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결심을 빛나게 관철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령도따라 생는 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앞보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전체 장병들은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수령결사옹위의 자랑스러운 령도와 전통을 앞장에서 빛내어나가야 할 성스러운 사명감을 심장깊이 새기고 세상선지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당중앙을 단결의 유일중심,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혈통만을 뜻깊이 이어가며 당중앙과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군부대장병들은 최고사령관의 구상과 의도를 영웅적위훈으로 받들어온 군위부대, 영웅부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높이 떨치며 혁명적명군체와 공군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최고사령관의 결심을 결사관철하는 참된 동지부대, 진정한 전투부대가 되야 한다.

군부대장병들은 김정은원수님의 리심을 불태우며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결사대, 척후대의 영예를 높이 떨치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군부대장병들은 21세기의 새로운 공격속도, 《마식령속도》의 창조자답게 불가늠을 모르는 군위부대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살림집과 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한 모든 건설대상물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상징으로, 선군조선의 국보로 일떠세워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공사에서 발휘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장병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따라배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각각 당조직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선구자의 모범을 보인 군위부대 정치사업의 경험을 본받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새로운 집단적혁신과 정경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전의 원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전체 장병들이 건군의 앞장에 서서 당중앙의 명령지시에 끝없이 충실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에서 불가늠을 모르는 군위부대, 영웅부대의 위훈을 계속 높이 떨쳐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주의전사 야. 페. 노비첸코의 생일 100돐에 즈음하여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주의전사 야. 페. 노비첸코의 생일 100돐에 즈음하여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을 전하며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할하는 행사가 4월 27일 야. 페. 노비첸코의 고향 도블넨스크구역 프라브노예마을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야. 페. 노비첸코의 유가족들, 노보세비르스크구역과 도블넨스크구역의 일꾼들, 기타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리석을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대표

단, 김연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일꾼들, 로씨야에서 사업하고있는 건설부대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국제주의전사 야. 페. 노비첸코의 묘에 진정되었다.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노비첸코의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혁명적동지와 애고

한 국제주의적도덕의리에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그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추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유가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노비첸코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의 의하여 같은 기백있고 썩직한 노래들과 정경열풍이 출현하여 전투장에 혁명적열정과 열정이 넘쳐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대장 최광호동무를 비롯한 중앙에술경제선전대의 예술선전대원들도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20여차례 걸쳐 경제선동화동을 벌려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전제 건설자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예술선전대원들은 녀성동창 《인생의 영광》, 《당기에 영원히 그대와 함께》, 녀성동창 《복받은 인민의 노래》, 녀성동창 《강을 따라 벌쳐나도 살리》, 함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독연 《아버지》, 《입대하는 날》과 같은 종무들로 현장들마다에서 전투적분위가 차넘치게 하였다.

평안남도예술훈예선전대의 예술선전대원들도 기동성있는 경제선동화동으로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에서 현인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전투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대장 사정철, 부대장 한명철동무를 비롯한 예술선전대원들은 혼성2중창 《보람찬 병사시절》, 녀성5중창 《웃음꽃이 만발했어》 등의 종무들을 가지고 10여차례 걸쳐 기동성있는 경

조선의 미래는 보다 휘황찬란할것이다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은 그이께서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받들어 조선혁명의 미래는 휘황찬란할것이다. 스승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필하고 발표하신 사상리론가이다.

그이께서는 로작들에서 투히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불멸의 혁명적적과 위대성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러한 결출한 수령을 모신 조선혁명의 미래는 휘황찬란할것이다. 스승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필하고 발표하신 사상리론가이다.

그이께서는 로작들에서 투히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불멸의 혁명적적과 위대성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중

합대학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독창적인 로선, 자주적인 정책으로 조선을 강력한 국가로 일떠세우게끔으로써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지금 세계가 조선이 그 누구의 압력에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길로 확고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조선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며 막강한 군력을 가진 강국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처럼 위대한 명도자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은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조선의 미래는 보다 휘황찬란할것이다.

힘차게 울려 퍼지는 화선선동의 포성 위 성과 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현인 공사장건설을 울려 퍼지는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의 그 어디에서나 중앙에술선전대의 예술인들과 여러 단위의 예술선전대원들, 기동에술선동대원들, 여러 미술창작기관의 창작가들이 화선선동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불꽃을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민주대에술선전대의 예술인들은 남성동창 《우리 앞날 밝다》, 녀성3중창 《우리 어머니》, 남성동창 《희망넘친 너의 조국아》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무들로 경제선동화동을 진행하여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피바다가극단의 예술인들과 국립연극단의 예술인들도 혼성4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 녀성동창 《당기에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비롯하여 성의껏 준비한 종무들을 가지고 건설장을 찾아 공연화동들을 전투적으로 벌리었다.

특히 혁명가극 《당의 참된

말》에서 주인공역을 수행하고있는 공훈배우 최애숙동무가 부른 불후의 고전적로작 《001에 걸친다》, 《그리운 장군님》은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부단장 정원철동무를 비롯한 국립민중예술단의 예술인들은 남성동창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녀성5중창 《군인일치 노래부르자》, 혼성2중창과 함창 《그이 없인 못살아》 등 뜻깊은 노래들로 전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인민배우 안경숙동무를 비롯한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은 여러 교예종목들로 화선선동을 특색있게 진행하여 건설장의 어디에서나 화열과 광만이 차넘치게 하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교예종목들과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교예, 흥미진진하게 건설자들과 교감하면서 호기심을 끄는 요술을 본 송하식, 장경일동무를 비롯한 건설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자연에너르기어구기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룩할 줄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수도건설위원회예술선전대원들도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의 여러 전투현장에서 20여차례의 기동성있는 경제선동화동을 진행하였다. 이 날엔 영영수, 정

제선동화동을 진행함으로써 건설장에 언제나 혁명적이며 탁월적인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였다.

조선인민대무예예술선전대의 예술선전대원들도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공격전이다와 같은 기백있고 썩직한 노래들과 정경열풍이 출현하여 전투장에 혁명적열정과 열정이 넘쳐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대장 최광호동무를 비롯한 중앙에술경제선전대의 예술선전대원들도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20여차례 걸쳐 경제선동화동을 벌려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전제 건설자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예술선전대원들은 녀성동창 《인생의 영광》, 《당기에 영원히 그대와 함께》, 녀성동창 《복받은 인민의 노래》, 녀성동창 《강을 따라 벌쳐나도 살리》, 함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독연 《아버지》, 《입대하는 날》과 같은 종무들로 현장들마다에서 전투적분위가 차넘치게 하였다.

평안남도예술훈예선전대의 예술선전대원들도 기동성있는 경제선동화동으로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에서 현인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전투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대장 사정철, 부대장 한명철동무를 비롯한 예술선전대원들은 혼성2중창 《보람찬 병사시절》, 녀성5중창 《웃음꽃이 만발했어》 등의 종무들을 가지고 10여차례 걸쳐 기동성있는 경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완수

121호림업련합기업소에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자서림산사업소가 제일먼저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사업소의 일꾼들은 산지작업소들의 림지조건과 실태를 료해한 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었으며 림산사업소들을 돌본 기구들과 자재, 우방물자공급을 적극 따라주며 로동자들을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수행에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그 과정에 림산사업소들에서 혁신적

임적으로 하고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데 이바지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각 사업소들에서 압록강의 물결을 리용하여 받들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줄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부전, 상향림산사업소에서는 통나무베기를 앞세우면서 자동차와 림철기판차에 의한 통나무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각 사업소의 공무동력기차들에서는 돌진기차들의 대수리를 책



당의 전투적소를 높이 받들고 주체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양광라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면서 각하의 고귀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께서 또다시 추대되신것은 평화와 민족적단합을 수호하고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영도하고계시는 각하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뢰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각하께서 조선인민의 의사에 맞게 조선반도에서의 안정과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라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계속 강화해나가려는 양광라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양광라공화국 대통령
주제 에두아르두 두스 산투스
2014년 4월 15일 루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각하

제1위원장각하
나는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로 다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알게리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신의 숭고한 임무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노력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제1위원장각하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메플리카
2014년 4월 16일 알제자이르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각하께와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확대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존경하는 각하와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와 협조를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키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협조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통상발전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쥬
2014년 4월 22일 울란바타르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각하께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만마련방공화국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계속 발전하며 인민들이 끊임없는 번영을 이룩하리라고 확

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행복하고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 계속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만마련방공화국 대통령
테인세인
2014년 4월 22일 네이빠도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각하
나는 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추대되신 행복한 기회에 각하께 나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베팔 대통령
박사 람바란 야다브
2014년 4월 29일 까뜨만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돐 기념보고회가 2일 중앙로동자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에서 선봉부대가 되자!》, 《사상교양단체로서의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에는 김진하 평양시당위원장 비서, 직업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직업초급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었다.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보고자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직책에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는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돐을 맞이하고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73(1984)년 5월 3일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신것은 직업동맹의 강화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주체의 직업동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이 더욱 풍부화되었으며 동맹사업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획기적전환의 리징표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직업동맹의 성격과 사명, 투쟁목적과 파업, 활동원칙 등 주체시대 직업동

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혀주셨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업동맹이 대중적정치조직으로서 로동계급과 직업인들을 교양시켜주어 당의 두리에 온 똘똘히 묶여서우고 온 사회의 김정일주의회의 요구에 맞게 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가장 중요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직업동맹은 당과 수령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사상교양단체로 강화발전되었다.
직업동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위대성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충실교양, 혁명진통교양, 사회주의의 교육의교양 등 여러가지 사상교양사업을 동맹원들속에서 활발히 벌여주며 위대한 장군님과 사회주의에 주체의,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였다.
어로작업중 사나운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되는 순간에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장을 물 한잔 스

는 계급의식을 지닌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켜야 한다.
김정일에국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직업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거울로 삼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체질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관철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인민군대원호 사업을 잘하여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직맹조직들은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 단계별로 사회주의중산경쟁을 활발히 조직함으로써 온 나라에 집단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더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직맹일군들과 직업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대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직맹동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모든 일군들과 직업원들이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혁명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정신을 받들고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당정책요양, 혁명진통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 사업을 공개적으로 벌려 직업일군들과 직업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열렬한 충정과 투철한 혁명적정신, 높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항일혁명투사인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황순희동지가 아흔다섯번째의 생일을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황순희동지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었다.
주체 8(1919)년 5월 3일에 태어난 황순희동지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품에 안겨 혁명의 참뜻을 키우게 되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황순희동지는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실현과 새 조국건설, 사회주의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수십년동안 조선혁명박물관 일군으로 사업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받들며 충정을 바쳐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나날 그에게 김일성훈장과 공화국 2중영웅, 로력영웅칭호,

항일혁명투사 황순희동지가 받아안은 은정어린 생일상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숙천군의 불철영농실태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보내주신 서한을 높이 받들고 숙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관없이 떨쳐나섰다.
총리는 열두삼천농장을 돌아

사람과 믿음을 받아안은 황순희동지와 항일혁명투사들, 가족, 친척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크나큰 은정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명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끝없는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보고장해주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이에 앞서 총리는 은과광산을 현지료해하였다.
총리는 선광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며 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서도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 《자기 수령,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념, 자기 인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이것은 곧 힘이고 열정이고 혁명적락관주의의 초석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은 혁명투쟁에서 발휘되는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 혁명적락관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혁명은 혁명가들의 무한한 힘과 불타는 열정, 혁명적락관주의에 의하여 전진해나가는 것이다. 혁명가들이 자기의 진해나가는 힘과 열정을 강그러 바치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혁명은 거대한 활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다.
혁명가들의 힘과 열정, 혁명적락관주의는 자기 수령,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념, 자기 인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념, 자기 인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이것은 곧 힘이고 열정이고 혁명적락관주의의 초석이라고 말할수 있다.
수령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풍모의 위대성을 심장같이 간직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언제나 혁명승리를 확신하게 된다. 민족의 운명이 암담하였던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E. C》의 열혈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실 믿은것에도, 최후승리가 원수들에게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 높여 웨칠수 있을것도 자기 수령의 위대성을 실현투쟁속에서 심장으로 절감하였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들은 어떤

혁명승리를 락관하며 시련도 죽음도 이기는 법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혁명의 일시적인 시련에서 겁을 먹고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이 우리 혁명투쟁력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눈을 현실을 보지만 신념은 미레를 본다. 이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때문에 혁명의 중구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령,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수령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풍모의 위대성을 심장같이 간직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언제나 혁명승리를 확신하게 된다. 민족의 운명이 암담하였던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E. C》의 열혈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실 믿은것에도, 최후승리가 원수들에게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 높여 웨칠수 있을것도 자기 수령의 위대성을 실현투쟁속에서 심장으로 절감하였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들은 어떤

박봉주 총리 숙천군의 불철영농실태 현지료해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숙천군의 불철영농실태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보내주신 서한을 높이 받들고 숙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관없이 떨쳐나섰다.
총리는 열두삼천농장을 돌아

보고장해주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이에 앞서 총리는 은과광산을 현지료해하였다.
총리는 선광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며 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서도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박근혜야말로 한시바베 제거해야 할 민족의 특등재앙거리이다

하늘 끝까지 치솟는 분노한 민심의 폭발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흘렀다. 집권초기 박근혜의 귀맛좋은 《공약》에 현혹되어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한달, 두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실망과 절망을 넘어 이제는 분노와 증오를 터뜨리고 있다.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한 애이린것들을 그대로 바다속에 수장해버리는 특대형불상사를 빚어내고 동족을 향해서는 남보기 장

피할 정도로 갖은 악담을 쳐대며 외세에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교태를 부리고 아양을 떠는것이 박근혜이다.

민심은 과연 박근혜를 어떻게 평하고 있는가.

《대통령》으로서, 인간으로서, 녀성으로서 모든 체모를 다 상실한 박근혜에게 팔없이 쏟아져내리는 비난과 배척의 불소나기는 그대로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팔이총리, 《방탄총리》로 불리난을 받을수는 있지만 그가 사교의 책인도 지고 비난의 화살도 맞았으리라는것을 타산하였던것이다.

허나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해보였던 박근혜는 한수 더 쓰기로 하였다.

그것이 사파놀음을 벌리며 《공공직인사파》로 급매는것이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소집하고 거기에서 《괴수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국무위원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한다.》, 《파워의 사파인지는 혼신인지 모를 수작을 대충 몇타만 쳐대고는 분향소(조문)를들어라는것을 편수 벌리었다.

박근혜의 서훈짜리 기만술책은 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모르쇠하고 땀만하며 너털의 화법이나 구사하고 밝은 하늘색옷을 입는 박근혜, 수백명이 숨지고 실종되었던 무수생각을 하고있는가. 여전히 정전안보, 지형상 거승리, 하늘색옷입고 정상회담 이런 생각들뿐인가. 도대체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발 립중해주시 바랍니다.》, 《그때 박근혜 당신에게는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짐승으로 보이고 국무위원들만 사람으로 보이는가. 피눈물을 뿌리며 절규하는 유가족들은 외면하고 제 족속인 정계 내부면들이들에서 연술한 《비공개사파》놀음은 안한것보다 못하다.》, 《실정도 실행도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그러면 유독 박근혜만은 민심의 분노에는 아랑곳없이 오만방만한 자세로 거짓사파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책임회피에만 몰두하는 저주맞을것을 꺼리질없이 저지르고있다.

어른들은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왔을 뒤 하늘에서는 남조선력거기의 착륙실패로 대참사를 빚어내고 땅에서는 서른 억수급안 쌍쌍부항소할거사태와 송구사 세모자살상등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연발되던 꼴에 바다에서까지 러져들이 침몰되는 특대형불상사가 겹쳐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전례없는 지진까지 계속 발생하고있는것을 보면 절경 남조선땅에 상사용지 못한 악운이 서리고 재앙이 도래하고있는것이 분명하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민심은 신봉히도 묘지의 봉분을 편상하게 푸른 기와를 씌운 청와대에 들어오는 박근혜가 실지로는 남녘땅을 사탕 밭살생자우으로 전변시켜놓은 《산당집녀주인》이 되었다고 정식으로 확언하고있다.

《물상식한 대비》, 《심히 못된 망발》, 《무지하고 무식의 절정》이라는 세인의 혹평이었다. 원래 그놈 개로망신했으면 조공이라도 정신이 들었어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지난 4월 25일에는 못태먹는 새같은 쟁내비를 쟁내먹을 미국상진을 초창해놓고 또다시 우리의 병진로선을 무력대고 헐뜯어대는 망발을 구경할 줄 아는것이었다.

지어 공동기자회견이라는데서 우리의 4차례시절가능성을 털거하면서 《위중한상황》에서 오바마가 서울을 행할것은 《북의 핵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메세지》로 원다고 제쳐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핵억제력과 병진로선에 대한 악담으로 일관된 박근혜의 동거이런 궤변을 두고 여론들은 일치하게 《마치 말을 보고도 허덕이는 더위먹은 암소》, 《남을 물어뜯는것이 본성인 미친개모양》, 《오바마집행실에서 《북핵포기》내용과 악을 겁달라는 철부지녀학생》이라고 혹독하게 비평하고있다.

민심은 외세의 핵확화를 막기 위해 동족이 보유한 정력의 핵억제력을 그리고 철뿔이대는 박근혜의 정신병을 고칠 약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입을 모아 개탄하고있다.

그 방도는 오직 사제실 판리원에게서 찾을 수 있을것이라고 하고있다.

《북핵포기》를 《대북정책》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발판만 할수록 오히려 심리적 압박을 가한것은 치달는 박근혜의 대결광풍은 치유불가능한것으로 되돌았다.

박근혜가 동족을 모욕하고 헐뜯는 그 무슨 《북인권》문제라는 새로운 모략을 남조해내고있는것과 대결광풍의 일판이다.

느닷없이 《아이들의 배고픔》과 《목숨을 건 탈북자들의 대량부출》과 같은 터무니

없는 망발을 늘어놓는것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인권에 대해 마구잡이로 악담질해대고있다.

사람들은 아직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것으로 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녀성도 아니고 남성 또는 중성인지 성별분간이 모호한 박근혜의 처지에서 아이들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얼마나 동족대적 미쳐났으면 우리 어린이들의 복된 삶까지 시비질 하겠는가 이우정상으로 규탄하고있다.

일이 바로 되자면 박근혜는 비현실적인 교육정책과 반인민적인 청소년차별정책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의 길을 택하는 남조선의 참관원 현실피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태를 묻은 고향과 친혈육들까지 버리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도 남조선야말로 참관간은 살려야 살수 없는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통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외민심은 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안락이 따르없이 인권을 운운해대는 박근혜의 추악한 몰골을 두고 《동네방네 싸다녀며 달달한 일시키는 촌아낙네》, 《얕질만물 일삼는 치마두른 경매》라고 신랄히 아우라고

온 남녘땅을 무덤으로 만들어놓는 《산당집녀주인》

지난 4월 16일 남조선 전라남도 진도 앞 바다에서 러져들이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온 남녘땅이 순식간에 대수라장이 되고 툭파고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 초산남 집으로 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현장에 몰려들어 친혈육의 목숨을 구원하기는커녕 시신조차 못찾게 되었다는 피리지는 절망감에 오늘도 가슴을 쥐어뜯고있다.

러져선에 오른 500명에 달하는 승객들 가운데서 피해자의 대다수가 나이 어린 학생들인것도 그러하지만 사고발생으로부러 실종자 가족과 수색작업에 이르기까지 피해당국의 위기관리무능과 무책임한 처사는 도수를 넘어치고있다.

이번 대참사는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빚어낸 특대형불상사이다.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박근혜가 돌아낸 꼴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사고발생통보를 받은후 어를거리다가 할수없이 구조작업이 벌어지고있는 현지에 머리를 내민 박근혜는 고작 내뱉는다는 수작이 《정말 안됐다.》는 말 한마디와 피해자 가족들을 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지위로 뿐이었다.

유가족들의 분노가 담긴 불벼락을 뒤집어 쓴 초췌한 몰골로 박근혜는 이것저것 다짐도 하였던 한갓 기만과 위선에 지나지 않았다.

인민들의 막대한 혐의를 방치하며 마비했다는 지난 조장비제의 물론 구조제 필수적인 간단한 잠수기제의 동원비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어면 대책도 취하지 않았던것이다.

구조작업에서의 혼란과 고의적인 태공에 대해 《새 사실을 물고기방으로 만들려는것인가.》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피눈물나는 곡성과 절규, 각계각층의 불만이 고조되자 4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것을 소집한 박근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선장이 살인파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하면서 자기는 허등의 책임도 없는것이 뭉개치고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배가 침몰할 당시 인명구조에 신경쓰기는 고사하고 승객들을 대신해서 그대로 대가리하는 어저치수없는 방송을 붙여대고 저들만 비상탈출로 물에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경악할 행위는 저만 살면 그만이라는 반인륜적 사고에 물들어있는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의 속도와 할수 있을것이다.

정치적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것이라면 인명은 백사만사우에 올려놓아야 할 최대중대사이다.

《심심한 위로》와 《격려》라는 서훈짜리 언사만 늘어놓고있는 박근혜의 책임지아늘음은 일반선사들의 목숨값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행렬이다. 《유신》후세의 체질적인 본성에서 나온 필연적결이었다.

온 거기에 애라는 심정으로 인명구조를 기원하고있는 때 박근혜일당이 제쳐낸 망발과 돌아낸 고평사서는 분노로 이끌려서는 민심이 화약주머니를 내민것 뿐이 되었다.

남조선의 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안보실장인 김장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호산취취취가 아니다.》면서 유가족들의 조사를 밀악하여대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자가 《당국에 대한 무당당한 비판부터 자제》하라고 으름장을 놓은것이다.

한편 구조제 동원된 공무원이라는자들이 시신발표장만을 배경으로 희희낙락히 기념사진을 찍어대고 숨겨가는 생명들을 옆에

밀어놓고 구급차를 배내어 사용에도 리용한것과 유가족으로 가장한 피한들이 구조물품을 뺏아내는 등 상상밖의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사고가 발생하여 달이 바뀌도록 매물과 평행한 표정으로 똑똑한 위로 한다며, 사과 한마디도 없이 줄거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론만을 떠돌아대는 박근혜의 비인간적이고 비사실적인 행위앞에 사람들의 증오와 격분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것은 박근혜의 몰골이 10년전과 대비해볼 때 너무도 상반되었기때문이다.

당시 권력야욕으로 이를 갈던 박근혜는 민심의 버림을 받은 《한나라당》을 되살림아심을 품고 여의도에 천막까지 쳐놓고 시민적인 정치를 퍼는것이 놀아났다.

박근혜의 기만적인 연기술에 속아넘어갔던 사람들은 그때의 《천막》을 특정정당을 살리고 총선거사에서 한사이라고 더 언했다. 이는 《당리당략》에 따라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진도에 《천막》을 쳐야 하지 않겠는가 호되게 단죄하고있다.

남조선전역을 휩쓰는 성난 민심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는 박근혜에 대한 아무 아첨말로로 공인되어있는 청와대총제지인 《국민소통광장》자유게시판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되는 이유》라는 문평이 실린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첫째,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제 할일도 모른다. 둘째, 박근혜는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임이 드러났다. 셋째,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라는 체계를 뒀 문평은 《구조는 왜 못하느냐.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 《잘못하면 책임자 엄벌에 처한다.》, 《그런 호풍이나 치라고 막대한 권한과 원문학력있는 월급, 고급식사와 초호화비행기, 골목없는 경호 등의 대우를 해주는것이 아니라고 박근혜를 엄하게 꾸짖었다.

지어 나이 어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도대체 참을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청와대지침을 따라본다 이 글을 올린다.》면서 공포적제사대에 살지만 박근혜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의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면 박근혜에게 청와대일장권을 쥐어준 유권자들까지도 그에게 속히오는 자기들의 가슴에 막심한 후회와 저주구 짝 차있다고 호소하고있다.

이처럼 지금 온 남녘땅에서 더 늦기 전에 무지무능한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들어내 기 위한 대통령탄핵요청이 일파만파로 번져지고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번져지는 상황앞에 제 정신을 차리고 제 할바를 찾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피괴꾸무총리를 또 다른 제물로 내던지었다. 간교한 박근혜가 피괴꾸무총리에게 침몰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되 그 시점을 사고수습이 끝난 다음 정하는 《총리에 고강징계를 선택했다》고 했다.

제 잔명부지를 위해 고안해내는 계획이 이만저만 아니다.

만약 사고수습이 종결되기 전에 현 《국무총리》를 사퇴시킨다면 세 《국무총리》는 사고와 무관하게 될것이고 모든 책임은 오직 박근혜 지기가 다 뒤집어써져 된다느니라.

반대로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사표를 낸 현 《국무총리》를 형식상 그대로 두면 《예를

팔이총리》, 《방탄총리》로 불리난을 받을수는 있지만 그가 사교의 책인도 지고 비난의 화살도 맞았으리라는것을 타산하였던것이다.

허나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해보였던 박근혜는 한수 더 쓰기로 하였다.

그것이 사파놀음을 벌리며 《공공직인사파》로 급매는것이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소집하고 거기에서 《괴수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국무위원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한다.》, 《파워의 사파인지는 혼신인지 모를 수작을 대충 몇타만 쳐대고는 분향소(조문)를들어라는것을 편수 벌리었다.

박근혜의 서훈짜리 기만술책은 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모르쇠하고 땀만하며 너털의 화법이나 구사하고 밝은 하늘색옷을 입는 박근혜, 수백명이 숨지고 실종되었던 무수생각을 하고있는가. 여전히 정전안보, 지형상 거승리, 하늘색옷입고 정상회담 이런 생각들뿐인가. 도대체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발 립중해주시 바랍니다.》, 《그때 박근혜 당신에게는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짐승으로 보이고 국무위원들만 사람으로 보이는가. 피눈물을 뿌리며 절규하는 유가족들은 외면하고 제 족속인 정계 내부면들이들에서 연술한 《비공개사파》놀음은 안한것보다 못하다.》, 《실정도 실행도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그러면 유독 박근혜만은 민심의 분노에는 아랑곳없이 오만방만한 자세로 거짓사파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책임회피에만 몰두하는 저주맞을것을 꺼리질없이 저지르고있다.

어른들은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왔을 뒤 하늘에서는 남조선력거기의 착륙실패로 대참사를 빚어내고 땅에서는 서른 억수급안 쌍쌍부항소할거사태와 송구사 세모자살상등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연발되던 꼴에 바다에서까지 러져들이 침몰되는 특대형불상사가 겹쳐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전례없는 지진까지 계속 발생하고있는것을 보면 절경 남조선땅에 상사용지 못한 악운이 서리고 재앙이 도래하고있는것이 분명하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민심은 신봉히도 묘지의 봉분을 편상하게 푸른 기와를 씌운 청와대에 들어오는 박근혜가 실지로는 남녘땅을 사탕 밭살생자우으로 전변시켜놓은 《산당집녀주인》이 되었다고 정식으로 확언하고있다.

《물상식한 대비》, 《심히 못된 망발》, 《무지하고 무식의 절정》이라는 세인의 혹평이었다. 원래 그놈 개로망신했으면 조공이라도 정신이 들었어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지난 4월 25일에는 못태먹는 새같은 쟁내비를 쟁내먹을 미국상진을 초창해놓고 또다시 우리의 병진로선을 무력대고 헐뜯어대는 망발을 구경할 줄 아는것이었다.

지어 공동기자회견이라는데서 우리의 4차례시절가능성을 털거하면서 《위중한상황》에서 오바마가 서울을 행할것은 《북의 핵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메세지》로 원다고 제쳐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핵억제력과 병진로선에 대한 악담으로 일관된 박근혜의 동거이런 궤변을 두고 여론들은 일치하게 《마치 말을 보고도 허덕이는 더위먹은 암소》, 《남을 물어뜯는것이 본성인 미친개모양》, 《오바마집행실에서 《북핵포기》내용과 악을 겁달라는 철부지녀학생》이라고 혹독하게 비평하고있다.

민심은 외세의 핵확화를 막기 위해 동족이 보유한 정력의 핵억제력을 그리고 철뿔이대는 박근혜의 정신병을 고칠 약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입을 모아 개탄하고있다.

그 방도는 오직 사제실 판리원에게서 찾을 수 있을것이라고 하고있다.

《북핵포기》를 《대북정책》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발판만 할수록 오히려 심리적 압박을 가한것은 치달는 박근혜의 대결광풍은 치유불가능한것으로 되돌았다.

박근혜가 동족을 모욕하고 헐뜯는 그 무슨 《북인권》문제라는 새로운 모략을 남조해내고있는것과 대결광풍의 일판이다.

느닷없이 《아이들의 배고픔》과 《목숨을 건 탈북자들의 대량부출》과 같은 터무니

없는 망발을 늘어놓는것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인권에 대해 마구잡이로 악담질해대고있다.

사람들은 아직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것으로 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녀성도 아니고 남성 또는 중성인지 성별분간이 모호한 박근혜의 처지에서 아이들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얼마나 동족대적 미쳐났으면 우리 어린이들의 복된 삶까지 시비질 하겠는가 이우정상으로 규탄하고있다.

일이 바로 되자면 박근혜는 비현실적인 교육정책과 반인민적인 청소년차별정책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의 길을 택하는 남조선의 참관원 현실피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태를 묻은 고향과 친혈육들까지 버리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도 남조선야말로 참관간은 살려야 살수 없는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통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외민심은 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안락이 따르없이 인권을 운운해대는 박근혜의 추악한 몰골을 두고 《동네방네 싸다녀며 달달한 일시키는 촌아낙네》, 《얕질만물 일삼는 치마두른 경매》라고 신랄히 아우라고

없는 망발을 늘어놓는것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인권에 대해 마구잡이로 악담질해대고있다.

사람들은 아직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것으로 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녀성도 아니고 남성 또는 중성인지 성별분간이 모호한 박근혜의 처지에서 아이들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얼마나 동족대적 미쳐났으면 우리 어린이들의 복된 삶까지 시비질 하겠는가 이우정상으로 규탄하고있다.

일이 바로 되자면 박근혜는 비현실적인 교육정책과 반인민적인 청소년차별정책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의 길을 택하는 남조선의 참관원 현실피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태를 묻은 고향과 친혈육들까지 버리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도 남조선야말로 참관간은 살려야 살수 없는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통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외민심은 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안락이 따르없이 인권을 운운해대는 박근혜의 추악한 몰골을 두고 《동네방네 싸다녀며 달달한 일시키는 촌아낙네》, 《얕질만물 일삼는 치마두른 경매》라고 신랄히 아우라고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현장에 몰려들어 친혈육의 목숨을 구원하기는커녕 시신조차 못찾게 되었다는 피리지는 절망감에 오늘도 가슴을 쥐어뜯고있다.

러져선에 오른 500명에 달하는 승객들 가운데서 피해자의 대다수가 나이 어린 학생들인것도 그러하지만 사고발생으로부러 실종자 가족과 수색작업에 이르기까지 피해당국의 위기관리무능과 무책임한 처사는 도수를 넘어치고있다.

이번 대참사는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빚어낸 특대형불상사이다.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박근혜가 돌아낸 꼴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사고발생통보를 받은후 어를거리다가 할수없이 구조작업이 벌어지고있는 현지에 머리를 내민 박근혜는 고작 내뱉는다는 수작이 《정말 안됐다.》는 말 한마디와 피해자 가족들을 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지위로 뿐이었다.

유가족들의 분노가 담긴 불벼락을 뒤집어 쓴 초췌한 몰골로 박근혜는 이것저것 다짐도 하였던 한갓 기만과 위선에 지나지 않았다.

인민들의 막대한 혐의를 방치하며 마비했다는 지난 조장비제의 물론 구조제 필수적인 간단한 잠수기제의 동원비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어면 대책도 취하지 않았던것이다.

구조작업에서의 혼란과 고의적인 태공에 대해 《새 사실을 물고기방으로 만들려는것인가.》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피눈물나는 곡성과 절규, 각계각층의 불만이 고조되자 4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것을 소집한 박근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선장이 살인파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하면서 자기는 허등의 책임도 없는것이 뭉개치고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배가 침몰할 당시 인명구조에 신경쓰기는 고사하고 승객들을 대신해서 그대로 대가리하는 어저치수없는 방송을 붙여대고 저들만 비상탈출로 물에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경악할 행위는 저만 살면 그만이라는 반인륜적 사고에 물들어있는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의 속도와 할수 있을것이다.

정치적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것이라면 인명은 백사만사우에 올려놓아야 할 최대중대사이다.

《심심한 위로》와 《격려》라는 서훈짜리 언사만 늘어놓고있는 박근혜의 책임지아늘음은 일반선사들의 목숨값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행렬이다. 《유신》후세의 체질적인 본성에서 나온 필연적결이었다.

온 거기에 애라는 심정으로 인명구조를 기원하고있는 때 박근혜일당이 제쳐낸 망발과 돌아낸 고평사서는 분노로 이끌려서는 민심이 화약주머니를 내민것 뿐이 되었다.

남조선의 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안보실장인 김장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호산취취취가 아니다.》면서 유가족들의 조사를 밀악하여대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자가 《당국에 대한 무당당한 비판부터 자제》하라고 으름장을 놓은것이다.

한편 구조제 동원된 공무원이라는자들이 시신발표장만을 배경으로 희희낙락히 기념사진을 찍어대고 숨겨가는 생명들을 옆에

밀어놓고 구급차를 배내어 사용에도 리용한것과 유가족으로 가장한 피한들이 구조물품을 뺏아내는 등 상상밖의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사고가 발생하여 달이 바뀌도록 매물과 평행한 표정으로 똑똑한 위로 한다며, 사과 한마디도 없이 줄거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론만을 떠돌아대는 박근혜의 비인간적이고 비사실적인 행위앞에 사람들의 증오와 격분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것은 박근혜의 몰골이 10년전과 대비해볼 때 너무도 상반되었기때문이다.

당시 권력야욕으로 이를 갈던 박근혜는 민심의 버림을 받은 《한나라당》을 되살림아심을 품고 여의도에 천막까지 쳐놓고 시민적인 정치를 퍼는것이 놀아났다.

박근혜의 기만적인 연기술에 속아넘어갔던 사람들은 그때의 《천막》을 특정정당을 살리고 총선거사에서 한사이라고 더 언했다. 이는 《당리당략》에 따라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진도에 《천막》을 쳐야 하지 않겠는가 호되게 단죄하고있다.

남조선전역을 휩쓰는 성난 민심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는 박근혜에 대한 아무 아첨말로로 공인되어있는 청와대총제지인 《국민소통광장》자유게시판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되는 이유》라는 문평이 실린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첫째,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제 할일도 모른다. 둘째, 박근혜는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임이 드러났다. 셋째,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라는 체계를 뒀 문평은 《구조는 왜 못하느냐.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 《잘못하면 책임자 엄벌에 처한다.》, 《그런 호풍이나 치라고 막대한 권한과 원문학력있는 월급, 고급식사와 초호화비행기, 골목없는 경호 등의 대우를 해주는것이 아니라고 박근혜를 엄하게 꾸짖었다.

지어 나이 어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도대체 참을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청와대지침을 따라본다 이 글을 올린다.》면서 공포적제사대에 살지만 박근혜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의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면 박근혜에게 청와대일장권을 쥐어준 유권자들까지도 그에게 속히오는 자기들의 가슴에 막심한 후회와 저주구 짝 차있다고 호소하고있다.

이처럼 지금 온 남녘땅에서 더 늦기 전에 무지무능한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들어내 기 위한 대통령탄핵요청이 일파만파로 번져지고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번져지는 상황앞에 제 정신을 차리고 제 할바를 찾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피괴꾸무총리를 또 다른 제물로 내던지었다. 간교한 박근혜가 피괴꾸무총리에게 침몰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되 그 시점을 사고수습이 끝난 다음 정하는 《총리에 고강징계를 선택했다》고 했다.

제 잔명부지를 위해 고안해내는 계획이 이만저만 아니다.

만약 사고수습이 종결되기 전에 현 《국무총리》를 사퇴시킨다면 세 《국무총리》는 사고와 무관하게 될것이고 모든 책임은 오직 박근혜 지기가 다 뒤집어써져 된다느니라.

반대로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사표를 낸 현 《국무총리》를 형식상 그대로 두면 《예를

팔이총리》, 《방탄총리》로 불리난을 받을수는 있지만 그가 사교의 책인도 지고 비난의 화살도 맞았으리라는것을 타산하였던것이다.

허나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해보였던 박근혜는 한수 더 쓰기로 하였다.

그것이 사파놀음을 벌리며 《공공직인사파》로 급매는것이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소집하고 거기에서 《괴수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국무위원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한다.》, 《파워의 사파인지는 혼신인지 모를 수작을 대충 몇타만 쳐대고는 분향소(조문)를들어라는것을 편수 벌리었다.

박근혜의 서훈짜리 기만술책은 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모르쇠하고 땀만하며 너털의 화법이나 구사하고 밝은 하늘색옷을 입는 박근혜, 수백명이 숨지고 실종되었던 무수생각을 하고있는가. 여전히 정전안보, 지형상 거승리, 하늘색옷입고 정상회담 이런 생각들뿐인가. 도대체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발 립중해주시 바랍니다.》, 《그때 박근혜 당신에게는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짐승으로 보이고 국무위원들만 사람으로 보이는가. 피눈물을 뿌리며 절규하는 유가족들은 외면하고 제 족속인 정계 내부면들이들에서 연술한 《비공개사파》놀음은 안한것보다 못하다.》, 《실정도 실행도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그러면 유독 박근혜만은 민심의 분노에는 아랑곳없이 오만방만한 자세로 거짓사파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책임회피에만 몰두하는 저주맞을것을 꺼리질없이 저지르고있다.

어른들은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왔을 뒤 하늘에서는 남조선력거기의 착륙실패로 대참사를 빚어내고 땅에서는 서른 억수급안 쌍쌍부항소할거사태와 송구사 세모자살상등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연발되던 꼴에 바다에서까지 러져들이 침몰되는 특대형불상사가 겹쳐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전례없는 지진까지 계속 발생하고있는것을 보면 절경 남조선땅에 상사용지 못한 악운이 서리고 재앙이 도래하고있는것이 분명하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민심은 신봉히도 묘지의 봉분을 편상하게 푸른 기와를 씌운 청와대에 들어오는 박근혜가 실지로는 남녘땅을 사탕 밭살생자우으로 전변시켜놓은 《산당집녀주인》이 되었다고 정식으로 확언하고있다.

《물상식한 대비》, 《심히 못된 망발》, 《무지하고 무식의 절정》이라는 세인의 혹평이었다. 원래 그놈 개로망신했으면 조공이라도 정신이 들었어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지난 4월 25일에는 못태먹는 새같은 쟁내비를 쟁내먹을 미국상진을 초창해놓고 또다시 우리의 병진로선을 무력대고 헐뜯어대는 망발을 구경할 줄 아는것이었다.

지어 공동기자회견이라는데서 우리의 4차례시절가능성을 털거하면서 《위중한상황》에서 오바마가 서울을 행할것은 《북의 핵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메세지》로 원다고 제쳐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핵억제력과 병진로선에 대한 악담으로 일관된 박근혜의 동거이런 궤변을 두고 여론들은 일치하게 《마치 말을 보고도 허덕이는 더위먹은 암소》, 《남을 물어뜯는것이 본성인 미친개모양》, 《오바마집행실에서 《북핵포기》내용과 악을 겁달라는 철부지녀학생》이라고 혹독하게 비평하고있다.

민심은 외세의 핵확화를 막기 위해 동족이 보유한 정력의 핵억제력을 그리고 철뿔이대는 박근혜의 정신병을 고칠 약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입을 모아 개탄하고있다.

그 방도는 오직 사제실 판리원에게서 찾을 수 있을것이라고 하고있다.

《북핵포기》를 《대북정책》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발판만 할수록 오히려 심리적 압박을 가한것은 치달는 박근혜의 대결광풍은 치유불가능한것으로 되돌았다.

박근혜가 동족을 모욕하고 헐뜯는 그 무슨 《북인권》문제라는 새로운 모략을 남조해내고있는것과 대결광풍의 일판이다.

느닷없이 《아이들의 배고픔》과 《목숨을 건 탈북자들의 대량부출》과 같은 터무니

없는 망발을 늘어놓는것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인권에 대해 마구잡이로 악담질해대고있다.

사람들은 아직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것으로 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녀성도 아니고 남성 또는 중성인지 성별분간이 모호한 박근혜의 처지에서 아이들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얼마나 동족대적 미쳐났으면 우리 어린이들의 복된 삶까지 시비질 하겠는가 이우정상으로 규탄하고있다.

일이 바로 되자면 박근혜는 비현실적인 교육정책과 반인민적인 청소년차별정책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의 길을 택하는 남조선의 참관원 현실피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태를 묻은 고향과 친혈육들까지 버리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도 남조선야말로 참관간은 살려야 살수 없는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통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외민심은 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안락이 따르없이 인권을 운운해대는 박근혜의 추악한 몰골을 두고 《동네방네 싸다녀며 달달한 일시키는 촌아낙네》, 《얕질만물 일삼는 치마두른 경매》라고 신랄히 아우라고

없는 망발을 늘어놓는것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인권에 대해 마구잡이로 악담질해대고있다.

사람들은 아직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것으로 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녀성도 아니고 남성 또는 중성인지 성별분간이 모호한 박근혜의 처지에서 아이들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얼마나 동족대적 미쳐났으면 우리 어린이들의 복된 삶까지 시비질 하겠는가 이우정상으로 규탄하고있다.

일이 바로 되자면 박근혜는 비현실적인 교육정책과 반인민적인 청소년차별정책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의 길을 택하는 남조선의 참관원 현실피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태를 묻은 고향과 친혈육들까지 버리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도 남조선야말로 참관간은 살려야 살수 없는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통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외민심은 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안락이 따르없이 인권을 운운해대는 박근혜의 추악한 몰골을 두고 《동네방네 싸다녀며 달달한 일시키는 촌아낙네》, 《얕질만물 일삼는 치마두른 경매》라고 신랄히 아우라고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현장에 몰려들어 친혈육의 목숨을 구원하기는커녕 시신조차 못찾게 되었다는 피리지는 절망감에 오늘도 가슴을 쥐어뜯고있다.

러져선에 오른 500명에 달하는 승객들 가운데서 피해자의 대다수가 나이 어린 학생들인것도 그러하지만 사고발생으로부러 실종자 가족과 수색작업에 이르기까지 피해당국의 위기관리무능과 무책임한 처사는 도수를 넘어치고있다.

이번 대참사는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빚어낸 특대형불상사이다.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박근혜가 돌아낸 꼴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사고발생통보를 받은후 어를거리다가 할수없이 구조작업이 벌어지고있는 현지에 머리를 내민 박근혜는 고작 내뱉는다는 수작이 《정말 안됐다.》는 말 한마디와 피해자 가족들을 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지위로 뿐이었다.

유가족들의 분노가 담긴 불벼락을 뒤집어 쓴 초췌한 몰골로 박근혜는 이것저것 다짐도 하였던 한갓 기만과 위선에 지나지 않았다.

인민들의 막대한 혐의를 방치하며 마비했다는 지난 조장비제의 물론 구조제 필수적인 간단한 잠수기제의 동원비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어면 대책도 취하지 않았던것이다.

구조작업에서의 혼란과 고의적인 태공에 대해 《새 사실을 물고기방으로 만들려는것인가.》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피눈물나는 곡성과 절규, 각계각층의 불만이 고조되자 4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것을 소집한 박근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선장이 살인파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하면서 자기는 허등의 책임도 없는것이 뭉개치고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배가 침몰할 당시 인명구조에 신경쓰기는 고사하고 승객들을 대신해서 그대로 대가리하는 어저치수없는 방송을 붙여대고 저들만 비상탈출로 물에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경악할 행위는 저만 살면 그만이라는 반인륜적 사고에 물들어있는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의 속도와 할수 있을것이다.

정치적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것이라면 인명은 백사만사우에 올려놓아야 할 최대중대사이다.

《심심한 위로》와 《격려》라는 서훈짜리 언사만 늘어놓고있는 박근혜의 책임지아늘음은 일반선사들의 목숨값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행렬이다. 《유신》후세의 체질적인 본성에서 나온 필연적결이었다.

온 거기에 애라는 심정으로 인명구조를 기원하고있는 때 박근혜일당이 제쳐낸 망발과 돌아낸 고평사서는 분노로 이끌려서는 민심이 화약주머니를 내민것 뿐이 되었다.

남조선의 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안보실장인 김장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호산취취취가 아니다.》면서 유가족들의 조사를 밀악하여대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자가 《당국에 대한 무당당한 비판부터 자제》하라고 으름장을 놓은것이다.

한편 구조제 동원된 공무원이라는자들이 시신발표장만을 배경으로 희희낙락히 기념사진을 찍어대고 숨겨가는 생명들을 옆에

밀어놓고 구급차를 배내어 사용에도 리용한것과 유가족으로 가장한 피한들이 구조물품을 뺏아내는 등 상상밖의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사고가 발생하여 달이 바뀌도록 매물과 평행한 표정으로 똑똑한 위로 한다며, 사과 한마디도 없이 줄거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론만을 떠돌아대는 박근혜의 비인간적이고 비사실적인 행위앞에 사람들의 증오와 격분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것은 박근혜의 몰골이 10년전과 대비해볼 때 너무도 상반되었기때문이다.

당시 권력야욕으로 이를 갈던 박근혜는 민심의 버림을 받은 《한나라당》을 되살림아심을 품고 여의도에 천막까지 쳐놓고 시민적인 정치를 퍼는것이 놀아났다.

박근혜의 기만적인 연기술에 속아넘어갔던 사람들은 그때의 《천막》을 특정정당을 살리고 총선거사에서 한사이라고 더 언했다. 이는 《당리당략》에 따라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진도에 《천막》을 쳐야 하지 않겠는가 호되게 단죄하고있다.

남조선전역을 휩쓰는 성난 민심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는 박근혜에 대한 아무 아첨말로로 공인되어있는 청와대총제지인 《국민소통광장》자유게시판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되는 이유》라는 문평이 실린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첫째,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제 할일도 모른다. 둘째, 박근혜는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임이 드러났다. 셋째,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라는 체계를 뒀 문평은 《구조는 왜 못하느냐.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 《잘못하면 책임자 엄벌에 처한다.》, 《그런 호풍이나 치라고 막대한 권한과 원문학력있는 월급, 고급식사와 초호화비행기, 골목없는 경호 등의 대우를 해주는것이 아니라고 박근혜를 엄하게 꾸짖었다.

지어 나이 어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도대체 참을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청와대지침을 따라본다 이 글을 올린다.》면서 공포적제사대에 살지만 박근혜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의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면 박근혜에게 청와대일장권을 쥐어준 유권자들까지도 그에게 속히오는 자기들의 가슴에 막심한 후회와 저주구 짝 차있다고 호소하고있다.

이처럼 지금 온 남녘땅에서 더 늦기 전에 무지무능한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들어내 기 위한 대통령탄핵요청이 일파만파로 번져지고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번져지는 상황앞에 제 정신을 차리고 제 할바를 찾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피괴꾸무총리를 또 다른 제물로 내던지었다. 간교한 박근혜가 피괴꾸무총리에게 침몰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되 그 시점을 사고수습이 끝난 다음 정하는 《총리에 고강징계를 선택했다》고 했다.

제 잔명부지를 위해 고안해내는 계획이 이만저만 아니다.

만약 사고수습이 종결되기 전에 현 《국무총리》를 사퇴시킨다면 세 《국무총리》는 사고와 무관하게 될것이고 모든 책임은 오직 박근혜 지기가 다 뒤집어써져 된다느니라.

반대로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사표를 낸 현 《국무총리》를 형식상 그대로 두면 《예를

팔이총리》, 《방탄총리》로 불리난을 받을수는 있지만 그가 사교의 책인도 지고 비난의 화살도 맞았으리라는것을 타